

서양사상의 전파와 한국의 수용 :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신연재
정치외교학과

<요약>

19 세기 말엽의 한국 지성계에는 다양한 근대 서양사상들이 전파되고 있었다. 국가의 자주가 위기에 처한 반면, 위기 탈출을 위한 내부적 수단이 부재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이런 상황과 인식에 따라, 19 세기 유럽의 사상계에서 타당성 경쟁을 벌이던 다양한 사상들이, 일본과 중국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에 전파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당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국가사상의 주요 지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사상은 제국주의에의 대응에 주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서구의 우월을 부국강병과 동일시하여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독립을 서둘렀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대외 저항에서 효용을 발휘해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외경쟁(外競)의 요구가 두 사상 각각은 물론 그 상호관계까지 규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국가 생존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준이 자유주의를 제약하여 민족주의의 우월을 초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의 저항적 속성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의 부강(富強)이 대외경쟁력의 증강을, 대외경쟁력이 대외 저항력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국가 생존의 절박성이 그들의 국민국가상 정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시민민족주의 관념이 저항민족주의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과정에 수반된 서양사상 전파의 영향으로, 그들의 국가사상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보다는,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자주의 확보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Diffusion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in Late Chosun Period

Yeon-Jae Shin
Dept. of Political Science

<Abstracts>

It is natural to think that the 'West' never had an one-sided impact on other societies in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Even when reform-oriented intellectuals of late Chosun argued Westernization, what they really had in mind was not the mechanical substitution of Western society and culture for Chosun. But what they had in mind was the transformation of Chosun in line with a highly selective vision of what the West was all about. The West that Chosun encountered was a part of a whole. This part, moreover, was metamorphosed in the process of encounter. A similar phenomenon occurred in the realm of political thoughts. Political thoughts are defined by situations, for they have meaning in the minds of people and the meaning of given political thoughts will be conditioned by the circumstances of its presentation. Before these political thoughts could evoke responses, they had to be communicated, and they could be diffused only by being filtered through Chosun language and thought patterns. This, inevitably, resulted in the alteration of the original political thoughts.

1. 머리말

사상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전파 과정에서 사상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국 지성계에서 서양사상의 다발적 전파를 촉진한 요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상 전파의 매개체는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류의 지식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양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가? 사상 전파의 영향으로, 서양사상과 토착사상은 어떻게 변용되었는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반도에서는 기존의 국내·국제 질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가면서, '토착'과 '외래'-즉, '전통'과 '근대', '한국'과 '서양'-의 상호 대응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 시기를 위기의 시대이자 기회의 시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혹자의 표현을 빌어¹⁾ 말하자면, 과거의 경험(space of experience)과 미래에의 기대(horizon of expectation)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격한 거리가 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19세기 말엽, 동아시아에 밀어닥친 서양은 전례없이 강력하고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천하 관념을 결여한 국민국가(nation-state)를, 경제적으로는 봉건체제를 넘어선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했고, 군사적으로 강성했으며, 과학주의와 민족주의를 철저히 신뢰하는 존재들이었다. 천하 관념, 봉건체제, 문반(文班) 중심의 문화, 도덕주의가 지배하는 유교적 질서에 젖어있던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서양은 강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질서와 가치의 수용을 강요하는 위협적 존재였다. 서양의 한반도에서의 행위 양식은, 단순히 다양한 이질 문명중의 하나로서 유교문명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 문명으로서 열등 문명-즉 유교문명-을 대치하려는 것이었다.

1) Reinhart Koselleck, *Futures Past :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Mass. : MIT Press, 1985), pp.267-288.

따라서 서양과 한국은 불가피하게 다방면에서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서양의 우월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유교적 국제정치질서를 대신하려는 서양적 국제정치질서의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은, 동·서 문명의 접촉이 서양의 일방적 충격에 한국이 대응하는 데 급급했던 형식이 아니라, 토착 질서에 입각한 한국의 대응 때문에 동서간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유교문명권 국가에서는 집권 세력과 지식인 집단이 유교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권력과 지성의 일치를 유지해 온 것이 통례였다.²⁾ 그러나 토착질서의 변화와 세계사 조류의 변화가 동시에 한반도를 짓누른 결과, 지배집단의 분열이 야기되었다.

이로부터 서구 문명의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었지만, 서양 세력의 외압에 권력 담지 세력보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지식인들이, 수용의 주도세력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워슨(Watson)이 지적했듯이 서양 세력은 세계적 팽창 과정에서 서구화된 엘리트를 창출했다. 이들이 서양의 정치, 사상, 과학, 기술, 제도에 주목하여 국민국가 관념을 도입하고 개혁운동을 주도했다.³⁾ 이들의 개혁 활동이 국민국가 건설에 집중된 것은 그 당연한 결과였거니와, 나아가서 이들이 추구한 국민국가의 상(像)이 서구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대 서양사상은 이들의 사상에 전파될 계기를 포착한다.⁴⁾

19 세기 말엽 서양과의 충돌 과정에서 야기된 국가 생존의 문제야말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양사상-민족주의, 제국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진화론, 국가유기체론 등-을 중첩적으로 수용하게 한 주요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서양간의 갈등은 구한말의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에게 서양사상의 전파 여건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파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구한말 근대 서양사상의 전파 및 수용과 관련하여 전파의 요인, 매개체, 영향, 성격을 살펴보려고 한다.

2. 문화, 정치, 전파

(1) 문화와 전파

전파는, 문화가 특정 지역이나 인종집단에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⁵⁾

-
- 2) 권력과 지성의 일치에 관해서는 노재봉, “한국의 지성 풍토”, 『문학과 지성』, 4-1 (1973 봄), pp.65-66 참조.
- 3) Adam Watson,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Expansion”, Bull and Watson (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1984), pp.27-32.
- 4) 그러나 이들의 근대국가관이 서구의 충격에만 대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내재적 모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근대적 발전의 계기로 전환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경지의 균등 분배, 타작제(打作制)의 정액제(定額制)로의 전환, 상공업 진흥, 과거제 폐지, 헌법 제정, 국회개설,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 입현군주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천부인권설 등을 주장한 것에서 보듯이 이들은 내정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 5)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문화 확산을 설명하면서, ‘문화 접촉’ 또는 ‘문화 변용’(acculturation) 개념을 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정치학계의 관례에 따라 전파(diffusion)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전파 개념에 관해서는 Urs Bitterli, *Cultures in Conflict : Encounters Between European and Non-European Cultures, 1492-1800*, trans. by Ritchie Robertson, (California : Stanford Univ. Press, 1989) ; Robert Heine-Geldern, “Diffusion”,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New York : Macmillan, 1974), Vol.4, p.169 ; Peter Hugill, “Diffusion”, in Levinson & Ember (eds.), *Encyclopedia of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 Henry Holt, 1996).

문화 전파 과정에서는 행위자들-전파자(주체)와 수용자(매개체, 객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먼저 전파되는 문화 요소는 전파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선교사들의 기독교 포교, 정복 세력의 자국 정치제도 이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의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전파는 일단 전파자의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파 과정에서는 전파자의 역할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목적과 가치에 근거를 둔 수용자의 판단도 전파자의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처럼 전파는 전파자의 목적은 물론, 수용자의 목적, 이해관계, 상황에 따라 변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정복자의 수가 적고 피정복자의 문화가 더 우월하면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문화에 동화되는 역전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만주족의 중국 문화에의 통화, 게르만족의 로마 문화 수용은 그 예로서 손색이 없다.

특정 문화 요소의 수용 여부는, 그것이 수용자에게 가져다주는 효용과 토착문화와의 조화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수용자이기 때문에, 문화 요소가 다른 인종집단에 의하여 변용이나 선택의 과정 없이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⁶⁾ 구한말 서양사상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에 의하여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또는 '토착과 외래의 절충'이 이루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⁷⁾ 따라서 전파의 역사에서는, 문화 요소를 다양으로 수용할수록 그리고 외래문화와 토착문화가 절충될수록 추가 수용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 통례이다. 즉, 토착문화와의 충돌 때문에 수용이 거부되었던 외래문화 요소도, 절충의 결과로 토착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수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구한말의 경우, 전파된 사상을 토착사상과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주로 대응한 것은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이었다.

(2) 정치와 전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인류학은 좁은 시각에서 문화 접촉과 충돌을 통한 문화 변동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주의 전파이론은 넓은 시각에서 그것이 국내외 정치질서의 변동을 가져온 점에 주목한다. 동주에 의하면, 전파의 영향으로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는 물론이고, 지배층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질서도 지속적 외압에 의하여 변화한다는 것이다. 동주는 특히 전파와 국제정치권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국제정치권은 일정한 정치 제도, 특정한 정치의식, 고정된 행위양식을 공유하는 권역이라고 이해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 요소가 전파된 지역에서 국제정치권이 성립되거나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권은 생활양식과 생활행위의 보편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정치행위와 정치의식의 보편성은 이런 문화적 보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권-유교문화권, 기독교문화권, 이슬람문화권-과 국제정치권은 사실상 일치한다고 동주는 파악한다.⁸⁾ 동주의 전파이론은 이렇게 정치전파이론과 문화전파이론을 연계시킨 것이라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6) Arnold Toynbee, *A Study of History*, Vol.viii (London : Oxford Univ. Press, 1973), p. 502.

7) 이 점에서 동아시아의 발전은, 서구문명의 모사 또는 이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상정한, 구미권의 일부 시각-근대화이론, 제국주의이론-은 전파의 속성을 몰각한 것이다. 두 이론 시각의 편향성을 비판한 것으로는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84), pp.57-153.

8) 동주는 '문화권'이 곧 '정치권'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제정치권이 문화권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다수의 역사적 전례를 들어, 양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임을 인정한다.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 상(박영사, 1985), pp.53, 57-58.

그렇다면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동주가 주장하는 전파의 요건은, 첫째 전파의 주체는 우월한 정치 세력, 즉 강대국이어야 하고, 둘째, 전파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셋째 전파의 매개체는 피전파국의 지배층이어야 한다. 동주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고 나타난 전파의 역사적 유형을 두 가지로 들고있다. 하나는 전파자가 정치, 문화, 군사 면에서 강력하고 발달되어 있는⁹⁾ 반면, 피전파자는 그렇지 못한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전파가 급속하고 강력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내정치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고대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둘은 전파자가 경제·군사면에서 우월하지만, 피전파자는 문화의 면에서 우월한 형태이다. 이 형태에서는 피전파자가 전통 문화와 정치를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문화·정치면에서의 저항이 강력하다. 더구나 피전파자가 문화권의 중심세력이거나 중심근접세력일 경우, 저항이 더 강력하며, 19 세기의 중국과 서양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적 압력이 계속되면 기존 국제·국내 정치질서에 동요가 일어난다. 요컨대 문화 영역에서는 군사, 정치, 경제의 강약에 관계없이 전파가 행해지지만, 정치와 정치사상의 경우에는 우월한 정치세력의 지속적 중압에 의하여 다른 정치사회에 전파되어 가는 것이다.¹⁰⁾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전파자의 압력과 피전파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전파의 속도와 심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정치전파와 문화전파가 다르지 않다.

3. 서양 사상의 전파와 한국사회의 수용

(1) 전파의 요인

19 세기 말엽의 한국은 나름대로 서양사상의 전파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구 강대국들의 지속적 압력, 계속된 서양문명의 침투, 일본과 중국의 매개, 지식인들의 세계관 변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피전파사회의 특정 요인이 특정 문화 요소의 전파를 결정하는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역사의 상례이다. 구한말 서양사상의 전파도 유교의 상대화, 과학의 미발달, 국교의 부재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¹¹⁾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국가의 생존, 즉 자주의 위기와 위기 탈출을 위한 내부적 수단의 부족이었다. 박영효는 이런 현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자주독립과 국체보전의 수단으로 ‘자립 자존의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¹²⁾

9) 동주는 근대국가의 군사적 속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속성은 전파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속성 이기도 해서, 전쟁이나 정복이 전파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Clark Wissler, *Man and Culture* (New York : Thomas Y. Crowell, 1923), pp.164-170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 1996).

10) 이용희, 앞의 책, pp.61-63.

11) 다른 국가들의 전파 사례를 보면 이데올로기의 절대성, 과학의 발전, 국교의 존재가 외래사상의 전파를 저해하기도 했다. 특히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맥시코, 이슬람권 국가 등에서 사회진화론의 전파에 작용한 촉진 및 저해 요인에 관해서는 Thomas F. Glick (ed.),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Univ. of Texas Press, 1972) 참조.

12) 박영효 저, 김갑오 역, “박영효의 建白書 - 내정 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 『한국정치연구』, 2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1990. 6) ; 김현철, 『박영효의 근대국가 구상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2), 4장 참조.

기존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해 온 토착사상이, 서세의 동점으로 야기된 국가 존부의 위기 상황에서, 자주 무기력성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생존을 위한 개혁에 한계가 드리워지면서, 변화된 국제정치질서 속에서의 국가 생존 문제가, 지배 세력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정치환경과 이로부터 야기된 위기의 식이, 서양사상의 수용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예컨대 사회진화론은, 국가 생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변화된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한국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자주를 확립하는 데 유효한 국가사상으로 인식되어 폭넓게 수용되었다. 그것은 약소국-한국-의 강대국-서양-에 대한 강력 부족이 제국주의의 원인임을 일깨워주는 것임은 물론, 약소국이 부국강병에 기초를 두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국가 생존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9세기 말 ~ 20 세기 초의 지식인들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상의 주조를 국가 생존의 문제에 두었다. 국내정치에 대한 위기의식보다는 국제정치에 대한 그것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리하여 토착질서의 모순 척결은 점차 부차적 문제로 차치된 반면, 국가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유기체론 그리고 사회계약론이 동시에 수입되었다.¹³⁾ 그렇다면 국가의 자주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자율적 해결 수단이 부재한다는 상황 인식이야말로, 서양사상의 동시 다발적 전파를 촉진한 주요 동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파의 매개체

전파 과정에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효용에 따라 전파될 요소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개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한말 서양사상은 대체로 일본과 중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파되었고, 이를 수용한 것은 주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었다.¹⁴⁾ 일본과 중국이 국제적 매개체였기 때문에 구한말의 서양사상 전파 과정에서는 2종의 굴절이 일어났고, 지식인들은 국내적 매개체이자 주체였다. 그런데 동주의 이론에 의하면 전파의 매개체는 피전파국의 지배층이어야 하는 바, 왜 구한말의 매개체는 주로 지식인에 한정되는가? 일반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역할은 주로 엘리트들에게 부여된다.¹⁵⁾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로 지식인의 역할이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명권 국가에서는 권력 담당 세력과 지식인 집단이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권력'

13) 김도형, "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 연구", 『한국사연구』, 54 (1986. 9).

14) 구한말의 지성계에서는 세 부류의 지식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하나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최익현, 이항로, 김평묵 등-로서, 당면한 대내외 위기의 원인이 유교 자체가 아닌 그 적용의 오류에 있으므로, 정통 유교질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는 대내적인 '위정'보다 대외적인 '척사'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점에서, 이들을 '보수파'라고 규정할 수 있다. 둘은 '도'(道)는 불변이되 '기'(氣)는 가변이라는 시각에서 東道을 중심으로 한 西器의 수용을 주장한 동도서기파이다. 이들은 서기-서양의 기술과 무기-의 가치를 주로 서양에 대용하는 수단으로 긍정한 결과, 유교 질서의 근간을 개혁의 표적으로 삼지 못한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온건 개화파'-김윤식, 어윤중, 김홍집 등-로 분류할 만하다. 셋은 '급진 개화파'-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로서, 내정의 모순과 외세의 충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서양문명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한, 가장 개혁적인 부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개혁 지향적 지식인'은 주로 셋째 부류의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15) Marius B. Jansen,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in Jansen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65), p.73 ; Franklin L. Baumer, *Intellectual Movements in Modern European History* (London : Macmillan, 1965), p.3.

과 ‘지성’의 일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토착사회 구조의 변화와 세계사 조류의 변화가 중첩적으로 투사된 결과, 19 세기 말엽의 한국사회는 점차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당연히 국가 생존의 위기가 찾아들어, 토착질서와 토착사상의 타당성이 약화되었고, 자주의 확보가 긴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내외의 격변기를 맞이하여 모순 인식, 대처방안, 신질서의 상(像)을 둘러싸고 지배집단의 분열이 야기되었다. 즉,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권력 담당 세력의 교체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한 반면, 집권층은 최소한의 변화로 격변에 대처하려 했던 것이다. 후자가 체제와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모순과 충격에 대응했다면, 전자는 모순과 충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체제와 권력의 변화를 수단으로 요구하고 있었다.¹⁶⁾ 지식인들의 정치사상과 역사의식의 변화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토착질서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세력이 대두되었고, 또 국제정치적 인식의 부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생겨났다. 지식인의 세계관 변화는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토착질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던 바, 그러한 개혁의 모델은 상당 부분 서양 사상과 제도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한 새로운 정치질서상에는 서구적 색채가 짙게 배어있다는 점에서 서양사상은 이들의 사상에 내면화될 계기를 포착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상을 포함한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 자문화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용이나 선택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외래사상을 토착사상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념, 문제, 해결책이 제기되는 것이다. 구한말의 경우, 전파된 외래사상을 기준의 토착사상과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주로 대응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의 역할이, 전파된 서양사상을 기준의 토착사상과 절충하여, 위로는 지배 세력을 아래로는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국제 차원에서는 전파의 매개체였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파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3) 전파의 영향

1) 민족주의와 국민국가 관념의 개발

19세기 유럽의 사상계에서는 다양한 사상들이 타당성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것들이 19세기 말엽 서구의 세계적 팽창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에 전파되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¹⁷⁾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당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국가사상의 주요 지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런데 이들의 국가사상의 주조가 제국주의에의 대응에 주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의 우월을 부국강병(富國強兵)과 동일시하여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독립을 서둘렀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대외 저항에서 효용을 발휘해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외경(外競)의 요구가 두 사상 각각은 물론 그 상호관계까지 규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대외저항에서 국가 생존으로 이어지는 규준이 작용한 결과, 자유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16) 佐藤慎一, “清末啓蒙思想の成立, 1”, 『國家學會雜誌』 92-5·6.

17) 단 유길준, 윤치호, 서재필 등은 서양사상을 직접 수용한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 1895년은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에서 분수령을 이룬다. 이 해에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발간되었고,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유교적 가치관이 급속히 붕괴되었으며 ‘동학혁명’, ‘을미사변’, ‘청일전쟁’ 등으로 인하여 내외의 정세가 위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서양사상이 활발히 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월이, 그리고 민족주의의 저항적 속성이 강화된 것이다.¹⁸⁾

신채호의 경우, 인민주권에 입각한 자유주의가 부국강병의 원천이라고 파악하고,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의 건설 필요성을 도출했다. 그러나 전통적 가산국가(家產國家), 가문, 사당 관념이 자유의 증진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국가의 건설을 저지했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국제적 생존경쟁에 구속되는 존재였다. 그런데 국가의 외경력이 한 두 사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 결과도 한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국가간의 경쟁이 국민간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전통적 관념의 타파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반대로 그는, 공공 정신과 자유 정신을 바탕으로 애국심을 개발하고 국가에 자발적으로 통합될 것을 요구한다. 흔히 민족주의는 인간의 충성, 애정, 궁지를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⁹⁾ 그렇다면 1차 집단에 대한 정감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그의 국가사상은, 근대 민족주의적 의식의 맹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국민의 자유, 권리, 평등, 공덕의 증진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간파한 결과였다. 이것이, 그가 주장한 신국민상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우선 자유민권과 자주국권의 조화를 추구하되, 국가의 생존을 더 중시한 업복-양계초 계열의 ‘변법자강’ 사상의 영향이 그에게 전파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²⁰⁾ 동시에 『대학』의 ‘수신’ 사상의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국민국가 관념을 육성하지 않고는 국가의 자강(自強) 및 자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유교의 폐단 국복과 함께 서양사상의 수용을 촉진했다. 특히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결과, 제국주의적 국제정치 행위가 경쟁의 윤리로 합리화되고, 그 경쟁의 결과가 힘의 우열로 결정된다고 인식되었던 한, 국가의 자강이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구한말의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은 자유주의 계열의 서양사상을 수용했어도, 국가의 자주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 신장보다 국력 증강에 더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²¹⁾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개인보다는 국가를, 이기심보다는 애국심을, 부민(富民)보다는 부국강병을, 공화제보다는 입헌군주제를 선호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국권의 강화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한, 전파된 서구사상들은 국민국가의 정당화 명분인 민족주의에 기여하는 범주 내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구한말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관념은 민권과 국권을 그 지주로 삼되, 양자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력의 우열이 국가의 세계를 규정하는 서양 국제정치질서에의 편입이 강화되면서, 사회진화론은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유효한 사상적 도구로 수용되었다. 그들은 사회진화론을 원용하여, 경쟁이 인

18)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2), pp.27-28.

19) 신채호, “가족 교육의 전도”, 단재 신채호 전집 간행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별집, pp.146-147 ; “20세기 신국민”, 앞의 책, pp.216-219 ; “금일 대한민국의 목적지”, 앞의 책, pp.175-177.

20) 1897년 『독립협회보』에 ‘自強’을 위하여 전면적 ‘變法’을 주장한 ‘양계초’의 『戊戌政變記』가 소개되었다. 일본 망명 시절에 발간된 그의 『淸議報』 및 『新民叢報』 그리고 『飲冰室文集』도 속속 입수되어 널리 전파되었다. 그의 사상이 널리 전파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구국을 위한 자강 사상을 주창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皇城新聞』(1899. 1. 3)은 『淸議報』 창간 소식과 함께 양계초 개인에 관해서도 소개했고, 默菴 李鍾一은 『飲冰室文集』을 개화서적으로 소개했다. 1900년대에도 양계초의 사상은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사상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다. 黃瓊은 양계초의 주장에 공감하여 그를 천재적 인물이라고 추켜세울 정도였다. 엽건곤, 『양계초와 구한말 문학』(법전출판사, 1980), p.117 ; 묵암 이종일, “비망록”, 『한국사상』, 16집, p.344.

21) 예컨대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단재 신채호 전집』, 하.

류의 천직이자 생활의 자본이라고 간주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에 압도되어 그 것의 적용 영역을 국가간의 관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강력의 사용이 사회진화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국제정치질서상이 심화되어,²²⁾ 강력의 결핍이 자주의 위기를 가중시킨 원인이라고 파악하게 된다. 신채호의 경우를 보자면, 고대에는 외경력과 외경사상이 왕성하여 자강을 성취했으나,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이후 외경력의 약화가 오늘의 망국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²³⁾ 따라서 그들의 국가사상에서는 외경력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강이 외경력의 증강을, 외경력이 대외 저항력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국가 생존의 절박성이 그들의 국민국가상 정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시민민족주의 관념이 저항민족주의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과정에 수반된 서양사상 전파의 영향으로, 그들의 국가사상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보다는,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자유의 확보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던 것이다.

2) 제설통합주의와 자기 모순의 강화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지성계에서는, 국가 생존에 대한 효용에 따라 토착사상과 서양사상을 절충한, 제설통합주의적 민족주의 관념이 구축된다. 게다가 서양사상의 다발적 유입과 함께 토착사상의 다기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그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만다. 이 시기 민족주의 관념의 두 축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자주였다. 그러나 저항민족주의의 속성은 대내적 질서의 모순보다는 대외적 위기에의 대처에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다. 이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계약론 등은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 의식의 가치를 환기시키되, 대외 저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에 따라, 그 설천이 유보되는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민족의 전체성과 국가의 최고성을 중시하되 개인의 개체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논리적으로 시민적 자유의 관철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상실의 위기가 제국주의적 팽창의 필연적 산물임을 간파했으면서도, 한국의 강력 결여가 제국주의의 원인이라고 파악하는 모순이 초래된다. 이른바 제국주의내인론(帝國主義內因論)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당위적인 면에서는 저항이 요구되나, 논리적인 면에서는 저항이 불가능한 모순이 이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추진한 개혁이, 부국강병을 수단으로 자주독립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음에도, 개혁 모델을 외세-서구와 일본-에 의존하던 터여서, 자주 의식의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바꾸어 말하자면 서구와 일본은 위협의 주체라는 점에서 저항의 대상이었지만, 선진문명국가라는 점에서는 개혁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주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국제법의 수용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은 본래 서양 국가간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제도였던 데 반하여, 비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관세자주권을 부인하고 치외법권과 조차지의 할양을 강제함으로써, 불평등의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국제법의 수용은 불평등의 제도화를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불평등의 탈출구를 그 제도에서 찾는 이율배반적 의미

22) 예를 들어 독립신문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반영하여 제국주의를 생존경쟁의 표본으로 합리화하는가 하면, 역사를 생활 유지와 종족 보호의 과정이라고, 또한 경쟁도 종족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1898년, 성균관에 입학한 신채호는 만민공동회 활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독립신문』, 1896. 7. 4; 주진오, "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 『손보기 박사 정년 기념 한국사학 논총』, (지식산업사, 1988).

23) "한국과 만주"『단재 신채호 전집』, 별집, p.232.

를 지닌 것이었다.

(4) 전파의 성격

동주에 의하면, 대체로 문화전파자-중심-와 피전파자-주변-의 관계는 중심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면에서 공히 우월하고 주변은 열등한 경우, 전파 속도가 급속하여 국제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중심이 군사 경제의 면에서 우월하지만 주변이 문화적 우월감을 보유한 경우, 주변의 전통적 가치에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정치적 저항이 강하게 제기된다. 유교문명권의 중심부와 준중심부에 자리잡았던 중국과 한국이 둘째 유형에 해당되며, 유교 문명권의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명치유신 이후 1880년대 중엽까지 급속하게 서구화를 추진했던 일본이 첫째 유형에 속한다.

기존 정치질서가 잇달아 그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구한말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과거 문화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게 된다. 특히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은, 토착 사상과 질서에 대한 강한 반발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신질서상(像)의 근거를 근대 서양문명에서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결과 전통을 수호하려는 세력마저도 서양사상에서 해답을 구하는 실정이어서 서양사상이 빠르고 다양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반발 뿐만 아니라 서구문명에 대한 회의도 속출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양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된다. 그들이 과거의 타당성을 부정한 경우에도, 과거의 현재에 대한 영향력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서양사상을 변용 없이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서양사상은 일방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단지 수용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토착 사상에 입각한 후자의 대응 때문에 동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용되었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다.²⁴⁾

구한말의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토착질서의 모순과 통치사상으로서의 유교의 한계를 비판하고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전통사상의 다기화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중국, 일본의 지성계와 마찬가지로 유교에 압도되어 왔던 여타 사상에 대한 관심이 부활되면서, 유교의 상대화와 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개혁이 유교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란 것이기는 커녕, 그 근간을 유지하는 한계내의 것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⁵⁾ 서양 사상과 문명의 전파 과정에서 ‘개화’를 ‘실상개화’(實狀開化)와 ‘허명개화’(虛名開化)로 구분한 유길준은, ‘토착’과 ‘외래’의 절충을 주장한 대표적인 논객이었다. 즉, 개화는 외래문화의 장점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토착문화의 우수한 부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의 개화 전략으로,

24) 이들은 한국사상과 서양사상을 비교하되, 자신들에게 이용 가능한 사고와 언어 범주를 이용하여 서양사를 수용했다. 이 점에서 코헨(Cohen)이 설명하는 중국의 서양사상 수용 방식은, 동아시아 3국에 보편적인 설명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즉, 서양의 사상은 중국이 그것에 대응하기 전에, 중국의 기존 질서에 입각한 중국어로 정제되어 중국적 의미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서구의 자유(liberty, freedom) 개념은 중국인들에게 자유방종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인이 대응한 것도 서구식의 자유개념이 아닌 중국식으로 관념된 자유방종이었다는 것이다. Paul A. Cohen, “Ch’ing China : Confrontation with the West, 1850-1900”, James B. Crowley (ed.),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1970), p.29.

25) 山室信一, “實學觀の政治的位相”, 『社會科學研究』, 31-5 (1980), pp.83-84. 그렇다면 이들의 이론바 ‘실학’(實學)은 ‘개신유학’(改新儒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마땅하다. 동아시아 3국 지성계의 개혁사상을 대변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즉인지용(利卽仁之用), 중체서용(中體西用)이, 모두 ‘용’(用)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이들이 추진한 것이 체제내적 개혁임은 분명하다.

서양 각국의 문화를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수용하되, 우수한 토착문화를 발전시키라고 역설했다.²⁶⁾

신채호의 경우, 그는 토착질서의 담지사상이자 국가 위기의 주요 출처였던 유교를 비판했지만, 유교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국민 정신과 정의, 도덕의 고양 수단으로서 유교의 가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유교가 각종 폐단-형식주의, 보수주의, 존화주의(尊華主義) 등-을 극복하여 국권 회복에 기여하도록 유도했다.²⁷⁾ 그러나 이들의 개혁사상이 체제 내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착사상을 개혁 지향적인 방향으로 다기화시킨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사상의 다기화는 한편으로 토착사상 재정립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그것은 서구와의 접촉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서양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서양문명의 해석과 수용도 유교적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강한 서구의 침투와 청·일의 압박에 의하여 자극된 국민국가 관념 육성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 또는 '토착'과 '외래'의 상호작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²⁸⁾

1890년대 이후 대내외적 위기가 제도화되면서 유교의 가치가 절하되었음을, 그럼에도 그것이 여전히 통치사상의 저변을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유교가 통치사상으로 잔존하여 기존 체제를 규율하고 있던 한, 서양사상은 유교와 공존 가능하도록 변용되어야만 했다. 이른바 '신구학절충론'(新舊學折衷論)-구본신참(舊本新參), 신구참작(新舊參酌) 등-은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유길준의 예를 들자면, 그는 단순히 서양문명을 소개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전통과 근대를 복합화하거나, 전통과의 연속선상에서 근대를 지향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은, 동아시아 3국이 서양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서양사상과 토착사상을, 나아가서 서양문화와 토착문화를 절충했다고 해서, 이를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나,²⁹⁾ '혼재' 또는 근대의 '초월'이라고³⁰⁾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전통은 서구와 접촉하기 이전의 과거를, 근대는 서구와 중요한 접촉이 있었던 시기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통과 근대는 상호 배타적인 것도 통합된 것도 아니다. 소위 전통질서에도 근대적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것처럼, 근대질서에도 전통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현재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어서, 전통과 근대는 상통할 수 없는 대립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통과 근대는 상호 배타적이며

26) 유길준, "서유견문,"『유길준전서』, 1권 (일조각, 1995), pp.376-384 ; 하영선, "유길준의 문명개화론 :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한국정치학회 1997년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유길준 사상 전반에 관해서는 정용화,『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2).

27)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의 부흥 여부는 오로지 유림에게 달려 있으니, 유림의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심사가 안정된자, 도덕을 존중하고 명리에 오염되지 않은자, ... 위무에도 불굴하고 부귀에 동요되지 않는 자는 자는 유림에 가장 많으므로 유림의 사회 참여가 있어야 사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우매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고 유림 동포,"『단재 신채호 전집』, 별책, pp.106-107.

28) 이 점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고루 찾아볼 수 있는 공통성이기도 했다. 명치 초기 10여 년간 일본의 '문명개화'를 선도했던 '명육사'(明六社) 계몽사상가들의 사상 저변에는 유교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福澤諭吉과 西周는 서양사상과 유교적 가치의 조정자로서 명치 사대 정치사상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加藤弘之의 초기 사상에서 발견되는 '자연권' 관념이 '사회계약론'이 아닌 유교적 '천' (天) 관념에 입각한 것이라는 평가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자성계의 일반적 추세였던 이른바 '西學源出於中國論'도 중국사상과 서양사상간의 상호작용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29) 하영선, 앞의 논문 ; 장인성, "유길준에 있어서의 도덕과 정치 - 자기·타자 인식의 정치적 사유," 한국정치학회 1997년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30) 김봉진, "유길준의 근대국가관 - 문명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1997년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양립 불가능하다는 전통-근대 패러다임에 집착하면, 한국 근대 사상계의 변화를 서구적 발전 가설에 맞추어 해석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전통과 근대는 명백히 구분되는 독립적 범주가 아니므로, ‘복합화’나 ‘혼재’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양자를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전제하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구나 ‘근대의 초월’이라는 해석은, 과거의 역사 상황에 비추어 과거의 사상을 해석하는 역사주의(historicism)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사상을 해석하는 현재주의(presentism)에 의존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 생존의 위기에 매몰되어 근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당시 지성계의 동향을 외면한 채, 근대를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현재의 시각에서 내린 해석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전파 과정에서 특정 문화 요소가 선택되거나 변용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구한말 서양사상의 전파 과정에서 특정 사상이나 그 요소를 배제 또는 변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대의 초월’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소위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근대를 초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근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차라리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자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국가의 존속에 모든 가치를 예속시켜 서양사상을 부국강병의 효과적 수단으로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서양사상의 급격한 수용보다는 선택적 수용과 변용을 추구했던 것이다.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조차도 구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변화를 추구할 정도였다. 그들에게 서양 사상과 문명의 전면적 도입은 기존 질서의 전면적 해체를, 그리하여 국가 자주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 자주의 위기가 서양사상 수용의 계기로 작용했어도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던 한,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서양사상 전파의 성격은,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나 ‘혼재’ 또는 근대의 ‘초월’이라기보다는, ‘토착’과 ‘외래’의 절충이라고 새기는 것이 더 온당하리라 여겨진다.

4. 맷는말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 지성계의 서양사상 수용은, 사상이 출처를 떠나 전파되는 과정에서 피전파자의 정치환경-객관적 조건-과, 그의 목적이나 선호-주관적 조건-에 따라 굴절될 수 있는 것임을, 그리하여 그 본질이 변용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사상이 본래 그것을 생산한 정치 세력의 의도와 상호 작용하는 정치환경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일단 전파 과정에 들어서면 상이한 환경에서 상이한 정치 세력의 의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용되기 마련인 것이다.³¹⁾ 서양 근대사상이 그 출처인 구미 세계에서 담당했던 역사적 역할을 박탈당한 채, 한국의 토착질서 변화에 대응한 지식인의 필요에 맞추어 구국(救國)의 정치사상으로 수용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말하자면 민족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 민주주의 등 서양의 근대사상을 수용하되, 그것들을 한국의 토착질서에 맞추어 변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31) 家永三郎, “日本思想史における外來思想の受容の問題,” 武田清子 編, 『思想史の方法と対象』(創文社, 1961), pp.201-208 ; Earl H. Kinmonth, “Nakamura Keiu and Samuel Smiles : A Victorian Confucian and Confucian Victoria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85, No.3 (June 1980), p.555.

구한말의 지성계에는 다양한 서양 근대사상들이 전파되고 있었다. 국가의 자주가 위기에 처한 반면, 위기 탈출을 위한 내부적 수단이 부재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이런 정치환경과 인식에 따라, 19 세기 유럽의 사상계에서 타당성 경쟁을 벌이던 다양한 사상들이 일본과 중국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에 전파될 수 있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는 이 과정에서 당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국가사상의 주요 지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사상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에의 대응에 주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서구의 우월을 부국강병과 동일시하여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독립을 서둘렀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대외 저항에서 효용을 발휘해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외경쟁(外競)의 요구가 두 사상 각각은 물론 그 상호관계까지 규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국가 생존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준이 자유주의를 제약하여 민족주의의 우월을 초래하고, 민족주의의 저항적 속성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의 부강이 대외 경쟁력의 증강을, 대외 경쟁력이 대외 저항력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국가 생존의 절박성이 그들의 국민국가상(像) 정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시민민족주의 관념이 저항 민족주의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처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과정에 수반된 서양사상 전파의 영향으로, 그들의 국가사상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보다는,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자주의 확보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우리는, 매개체의 목적과 정치환경에 따라 사상의 본질이 얼마든지 변용될 수 있음을, 구한말의 서양사상 전파 및 수용 과정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도형, “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 연구,”『한국사연구』, 54 (1986. 9)
- 김봉진, “유길준의 근대국가관 - 문명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1997년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 김현철, 『박영효의 근대국가 구상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2)
- 노재봉, “한국의 지성 풍토,”『문학과 지성』, 4-1 (1973 봄)
- 단재 신채호 전집 간행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형설출판사, 1977)
- 목암 이종일, “비망록,”『한국사상』, 16집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나남, 1996)
- 박영효 저, 김갑오 역, “박영효의 建白書 - 내정 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한국정치 연구』, 2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1990. 6)
- 엽건곤, 『양계초와 구한말 문학』(법전출판사, 1980)
- 유길준 전서 편찬위원회 편, 『유길준전서』(일조각, 1971)
-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 상 (박영사, 1985)
- 장인성, “유길준에 있어서의 도덕과 정치 - 자기·타자 인식의 정치적 사유,” 한국정치학회 1997년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 정용화,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2)
- 주진오, “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손보기 박사 정년 기념 한국사학 논총』(지식산업사, 1988)
- 하영선, “유길준의 문명개화론 :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한국정치학회 1997년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 家永三郎, “日本思想史における外來思想の受容の問題,” 武田清子 編, 『思想史の方法と對象』(創文社, 1961)
- 山室信一, “實學觀の政治的位相”, 『社會科學研究』, 31-5 (1980)
- 佐藤慎一, “清末啓蒙思想の成立, 1,” 『國家學會雜誌』, 92-5 · 6
- Baumer, Franklin L., *Intellectual Movements in Modern European History* (London : Macmillan, 1965)
- Bitterli, Urs, *Cultures in Conflict : Encounters Between European and Non-European Cultures, 1492-1800*, trans. by Ritchie Robertson (California : Stanford Univ. Press, 1989)
- Cohen, Paul A.,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84)
- , “Ch'ing China : Confrontation with the West, 1850-1900,” James B. Crowley (ed.),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1970)
- Glick, Thomas F. (ed.),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Univ. of Texas Press, 1972).
- Heine-Geldern, Robert, “Diffusion,”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New York : Macmillan, 1974), Vol.4
- Hugill, Peter, “Diffusion,” in Levinson & Ember (eds.), *Encyclopedia of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 Henry Holt, 1996)
- Jansen, Marius B.,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in Jansen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65)
- Kinmonth, Earl H., “Nakamura Keiu and Samuel Smiles : A Victorian Confucian and Confucian Victoria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85, No.3 (June 1980)
- Koselleck, Reinhart, *Futures Past :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Mass. : MIT Press, 1985)
- Toynbee, Arnold, *A Study of History* (London : Oxford Univ. Press, 1973), Vol.viii
- Watson, Adam,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Expansion,” Bull and Watson (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1984)
- Wissler, Clark, *Man and Culture* (New York : Thomas Y. Crowell, 1923)